JBLI이슈페이퍼 2026-06

위탁은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 군산 장애인콜택시 사태와 사라지지 않는 원청의 책임

| 조용화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BLI이슈페이퍼 2026-06

위탁은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군산 장애인콜택시 사태와 사라지지 않는 원청의 책임

발행일 | 2026년 9월 18일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
전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이슈페이퍼 2026-06

위탁은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 군산 장애인콜택시 사태와 사라지지 않는 원청의 책임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군산 장애인콜택시의 교섭 거부와 운영비 유용 의혹은, 사측의 일탈 또는 군산시가 빠져도 되는 노사문제 어느 한쪽으로 축소될 수 없다. 같은 쟁점이 위탁 주기마다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 구조와 원청 군산시의 책임 문제다.

1. 명절을 앞두고 사라진 이들

오늘(9월 18일) 군산 장애인콜택시의 양대 노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분회와 한국노총 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노조)는 부분파업과 파업 결의대회에 들어갔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23일 전일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양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은 5개월

동안 어떤 임금안도 내지 않았고, 원청인 군산시는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앞선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조는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수당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군산시는 노사 문제라는 이유로 물러서고 있다.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도, 이를 결정하고 책임 있게 답할 주체가 나서지 않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코앞이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일상과 이동-삶을 나르는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은, 추석과 가족을 뒤에 두고 수탁업체와 지방정부 앞에 여전히 서 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 문제 앞에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장애인 이동권은 뒤로, 다시 뒤로 밀려나야 했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사라진 이들, 책임지지 않는 이들이 애써 가리려 하는 민낯의 뒤편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

2. 지금의 사측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2025년 10월, 군산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단체를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당시에도 노조는 이 단체의 운영비 유용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산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재위탁을 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프레시안, 2025.10.2.). 지금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이 바로 그 단체이고, 그때 제기됐던 유용 의혹은 오늘의 쟁점이 되었다.

2022년에도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협의회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내부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특정 기관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용자와 운전원이 선정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전북중앙신문, 2022.10.13.).

3. 이것은 반복이다

올해 5월,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연구는 군산에서 같은 쟁점이 위탁 갱신 주기마다 되돌아왔음을 확인한다. 유용의혹은 2017·2025·2026년 세 번, 선정과정 의혹은 2022·2025년 반복되었으며, 지금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그것이 민간위탁 구조의 핵심이다. 위탁 갱신의 불안정성은 노동자의 경험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군산의 한 노동자는 “이게 항상 3년이 되면 입찰 때만 되면 제일 불안한 게 고용안정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심했어요”라고 말했다(조용화, 2026: 123).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용불안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 자체를 제약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48.7%가 "그냥 참고 견딤"을 택해 가장 높았다. 노조 활동이나 동료에게 알리는 집단적 대응은 그보다 낮았다. 자신을 지킬 공식 통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부당함조차 개인적으로 견디는 방식으로 버텨 온 것이다. 또한 2023년 군산 노동자들의 파업에서도 고용승계

와 경력 불인정 문제가 제기됐음을 기록했다(같은 글: 34). 오늘의 근속수당 요구는 경력과 숙련을 노동조건에 반영해 달라는 누적된 요구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함께 요구하며 처우를 바꾸어 왔다. 군산 면접에는 노조의 노력으로 명절 보너스와 식대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같은 글: 121). 교섭은 이처럼 노동조건을 실제로 개선해 온 통로다. 사측이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군산시가 노사 문제라며 물러서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온 그 개선의 통로를 가로막는다.

오늘 열린 결의대회의 이름을 다시 읽는다. "운영비 유용 의혹 진상 규명! 교섭 거부 사측 아웃! 2026년 임단협 쟁취! 진짜사장 군산시가 책임져라! 파업결의대회". 문제의 반복은 구조의 조건을 엎고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과 책임을 외면하는 군산시 사이에서 진동한다.

4. 두 개의 책임

장콜 연구보고서는 낮은 기본급을 시간외·휴일근무로 보완해야 하는 임금구조를 확인했다. 임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노동자의 생활시간과 휴식이 투입되는 구조다.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민간위탁 구조 아래, 노동조건과 이동권 무엇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5개월간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측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 동시에, 위법 전력과 의혹을 알면서도 이 단체를 재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약속했던 군산시는 그 책임에서 물러설 수 없다. 노동자들이 든 말, "진짜사장 군산시가 책임져라"는, 위탁 뒤로 원청이 숨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군산시는 "노사 문제"라는 방관을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며, 재선정 당시부터 제기된 운영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공개해야 한다.

5. 반복을 끊기 위한 길 위로

개별 위탁 갱신마다 되풀이되는 이 문제는 군산만의 일이 아니다. 장콜 연구보고서는 전북 차원의 표준임금제와 도 단위 공공 통합운영으로 이동권과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반복을 끊는 근본적인 방향이라 제언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서 책임 앞에서 몸을 감출 수 없다. 공공 통합운영은 운영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용과 임금, 배차와 휴게, 민원 대응의 운영과 책임을 함께 묶어야 하는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의 핵심은 전북의 장애인콜택시 노동 현장이 무수한 몸의 고통과 아픔이 담긴 자리이며, 동시에 그것들이 '효율'의 이름으로

지워지는 장소라는 점이었다. 보고서 설문에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큰 운행 애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배차 알고리즘"(3.97점)과 "주행 중 배차"·"연속운전 피로누적"(각 3.96점)이었다. 효율을 위해 설계된 배차 장치가 정작 노동자의 몸에 가장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다. 실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은 평균 3.45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3.68)와 운수업 노동자(3.62)보다 낮았다.

명절을 앞두고 책임을 방관하는 이들이 만든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른 이의 몸을 기다린다. 사측과 군산시가 회피한 책임의 비용을 몸에 얹고서. 그것은 다시 교통약자의 몸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장콜 노동자들은 길 위에 섰다. 군산 장애인콜택시를, 교통약자를, 이곳 전북에 살아가는 이들을 정말 외면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오늘 부분파업과 23일 전일파업을 준비하는 군산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문제를 반복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조용화. (2026). 공공성 약화가 몸과 시간에 각인되는 현장: 전북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6-01.

신문기사

김기현. (2022.10.13.). "군산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위탁과정 의혹 밝혀라"". 전북중앙신문.

김하늘. (2025.10.2.). 범죄 전력 단체에 군산 장애인 콜택시 재위탁 논란…"서비스 운영 부적절". 프레시안.